http://dx.doi.org/10.15749/jts.2023.24.1.007

번역학연구
24권 1호
(2023.3.31.)

번역사회학적 작품분석을 바탕으로 '위안부'에 대한 초국적 이해 모색－증언소설『한 명』번역을 중심으로*

마 승 혜
(동국대, 서울)

1. 서론

2022년 12월 기준,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는 240명 중 단 10명만 남은 상황이다(고병찬 2022). 이들이 과거에 겪었던 시련과 고난을 기록한 자료는 정부 및 유엔 인권위원회 조사보고서와 같은 공식 역사기록, '위안부' 생존자의 구술 증언집과 같은 비공식 역사기록, 그리고 '위안부' 생존자 증언을 바탕으로 한 문학, 드라마, 또는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 콘텐츠이다. 그런데 '위안부' 생존자의 경험과 감정을 보존하여 후대 또는 타 문화권에 전승 및 전달하는데 있어서 공식 역사기록과 비공식 역사기록은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공식 역사기록은 '위안부' 제도와 관련하여 특정 주체의 입장에서 선택된 '사실' 위주로 기술한다는 한계가 있고, 비공식 역사기록인 구술 증언집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위안부' 생존자의 '침묵'이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8051197).
이 논문은 2022 세계한국어한마당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보완하였음.

www.kci.go.kr

(김미영 2009: 10-20).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유교문화와 고통의 트라우마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위안부' 생존자는 강요된 수치심과 기억 소실을 겪게 되고, 그 결과 자신들이 겪은 일을 상세히 증언하고 기록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식/비공식 역사기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문학, 드라마, 또는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 콘텐츠이다. 그러므로 '위안부' 생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위안부' 증언문학[1]은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생존자들의 소멸해가는 기억을 보존하고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억압된 감정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사회적·학술적으로는 '위안부' 이슈를 글로벌 지평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2] 지금까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3]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위안부' 이슈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타 문화권의 일반인들에게까지 이 이슈가 널리 전달되지는 못하였다. '위안부'에 대해 초국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위안부' 생존자의 경험과 감정이 상세하면서도 정확하게 타 문화권에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안부' 생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집필한 문학작품을 번역하여 그 경험과 감정을 타 문화권 독자들과 공유하는 것은 '위안부'에 대한 초국적 논의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번역을 통해 고통의 경험과 감정이 바르게 전달되어 타 문화권에서 '위안부'에 대한 이해와 논의의 근간이 마련되면, 이는

1) "일반적으로 증언문학은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 중심이 되며,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러 관점이 동시에 드러나게 하는 접근방법을 이용함으로써 더욱 객관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다"(정찬영 1999: 352).

2) 2021년 8월 14일 서울시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국제적 쟁점과 협력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을 주최한 서울시는 '위안부' 이슈를 한·일 간 정치적 문제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국제적 관점에서 공유되는 기억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학계에서도 '위안부' 이슈에 대해 공동의 논의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학술지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의 2021년 3월 특별호 주제는 "The 'Comfort Women' as Public History"였고, 학술지 *Korea Journal*의 2021년 봄호 주제는 "Global Perspectives on the 'Comfort Women' Issue"였다.

3) 2013년 국제사면위원회와 한국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위안부' 생존자의 증언을 듣고,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유엔국제연합인권이사회(UNHRC) 행사를 공동 주최하였다(신재연 2013).

www.kci.go.kr

미래 지향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반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차 소멸해가는 '위안부' 생존자의 기억과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위안부' 증언소설[4] 『한 명』과 영어번역 *One Left*를 '번역가-번역결과물-독자반응'을 연계하는 번역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향후 '위안부' 이슈에 대한 초국적 이해의 기반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살펴보겠다.

2. 번역사회학 개념 및 적용

번역은 어떤 종류이든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이자 산물이고, 번역을 수행하는 번역가는 사회 체계 안에 속해 있는 개인이므로 번역 현상은 사회적 상황과 직결되어 있다. 즉, 어떤 작품을 번역할지 작품을 선택하고, 번역 전략을 수립하며, 그 결과물을 배포하는 과정 모두 사회적 상황과 연관이 있다(Wolf 2007: 1). 그러므로 번역은 단순히 언어 간 치환이 아닌 사회적 실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번역을 텍스트 밖의 상황과 연계하여 분석하는 '번역사회학(Sociology of Translation)'은 프랑스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 1930-2002) 사회학 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Heilbron and Sapiro 2007: 93).

그러므로 번역사회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부르디외의 사회학 주요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번역가의 아비투스(*habitus*), 자본(capital), 일루지오(*illusio*) 및 장(field)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면 이를 바탕으로 번역 실천 결과물에 대한 분석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다. 요컨대 부르디외는 그의 저서 *Distinction*(1984)에서 '[(아비투스) × (자본)] + 장 = 실천'이라는 이론을 제시하며 아비투스와 자본 그리고 장의 상황이 어우러져 구체적인 실천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Bourdieu 1984: 101). 그러므로 부르디외 사회학에서 언급하는 아비투스, 자본, 장 그리고 일루지오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

4) 증언문학의 한 부류인 증언소설은 사실을 바탕으로 문학적 요소를 가미한 소설을 말한다(정찬영 1999: 352).

www.kci.go.kr

고, 이 개념을 적용하여『한 명』영어번역가 브루스 풀턴과 공동번역가인 주찬 풀턴의 아비투스, 자본, 일루지오 그리고 관련 장에 대해 살펴보겠다.

2.1. 번역가 아비투스 및 자본

아비투스는 한 개인이 과거의 양육, 교육, 사회 경험을 통해 형성하는 '습관(habit)'과 비슷한 것으로 개인의 성향 및 기질을 보여주는 체계이다(Tyulenev 2014: 173). 아비투스는 특정 직업 활동을 시작하기 전 양육방식, 성장과정, 교육 등을 통해 형성된 1차 아비투스(primary *habitus*)와 특정 직업 활동 시작 이후 관련 규범 및 규칙을 습득하고 영역 내 타 행위자들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된 2차 아비투스(professional *habitus*)로 세분화할 수 있다(임진 2021: 662). 번역가에게 있어서 아비투스는 번역 실천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고, 아비투스에 기반한 번역 실천 통해 수용 문화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Gouanvic 2005: 164). 이러한 아비투스 개념을 분석 대상 번역가에 적용하여 살펴보면, 번역가 브루스 풀턴과 아내 주찬 풀턴[5]은 1980년대 초반부터 40년 이상 한국문학 영어번역을 수행해 왔고, 그 어떤 번역가보다 한국 현대소설을 가장 많이 번역했다(김자경 2021: 48). 문학평론가 권영민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한국문학 교수이자 번역가인 브루스 풀턴을 현재 영어권에서 활동 중인 최고의 한국문학 번역가로 평가한다(ibid.). 이들의 1차 아비투스를 살펴보면, 한국문학과 전통에 지대한 관심과 흥미를 지닌 것을 알 수 있다.

> "I'm increasingly interested in the Korean literary tradition as a whole—the oral tradition and recorded literature, writing in classical Chinese as well as writing in Korean, traditional as well as modern literature—and the rich intertextuality and intermediality it displays(한국의 구전문학, 기록문학, 한문과 한글 고전문학, 전통문학, 현대문학 등 한국문학 전통 전반에 관심이 많고, 한국문학에 풍부한 상호텍스트성과 상호매체성과 같은 특성에도 흥미가 많습니다)."[6]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16)

5)『한 명』을 영어로 번역한 번역가는 브루스 풀턴과 주찬 풀턴 두 명이지만, 이들은 번역 파트너로서 함께 번역을 수행하므로 본 논문에서 '번역가'는 이 두 명의 번역가를 통칭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www.kci.go.kr

번역가로서 형성된 2차 아비투스를 살펴보면, 번역을 통해 한국문학을 세계에 알리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ve always hoped, along with my good wife and translation partner, that our translations will bring increased attention, both abroad and in Korea, to the vibrant Korean literary tradition(제 번역 파트너인 아내와 함께 번역을 통해 한국문학 전통의 역동성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주목할 수 있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ibid.)

이러한 아비투스를 바탕으로 한국문학 영어 번역을 실천한 결과 그 능력과 공로를 인정받아 브루스 풀턴 번역가는 다양한 자본을 획득하였다. 부르디외 사회학에서 자본이란 개인이 실천을 거듭한 결과 축적되고 인정받게 된 자질 및 특징을 말한다. 자본은 돈과 같은 경제 자본(economic capital), 지식과 같은 문화 자본(cultural capital), 사회적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 자본(social capital), 그 외 학력 및 수상 경력과 같은 상징 자본(symbolic capital)으로 세분된다(Tyulenev 2014: 175). 풀턴의 경우 1998년 펜(PEN) 번역문학상, 2001년 제5회 한국문학번역상, 2009년 제17회 대산문학상 번역부문, 2018년 제22회 만해대상 문예부문 등 다수의 상을 받으며 많은 상징자본을 축적하였다.

이렇듯 한국문학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한국문학을 널리 전파하고자 한 아비투스, 그리고 문학번역을 실천하며 얻게 된 다양한 상징자본을 바탕으로 이들은 역사소설『한 명』을 번역하였다.

2.2.『한 명』의 번역본 *One Left* 출판 당시 출판장

부르디외 이론에서 '장'은 구조화된 사회적 공간으로 참여자들이 직업 행위를 실천하며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서로 대결하는 경험상의 공간이다(Tyulenev 2014: 173). 부르디외는 이 대결(또는 투쟁)을 일종의 '게임(game)'으로 보았고, 이 대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참여자들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이성희 2013: 155). 장은 문학장(literary field), 출판장(publishing field), 번역장(translation field) 등 다양한 장으로 분화될 수 있다.

---

6) 이하 발췌한 인터뷰 자료의 괄호 안 번역은 필자의 번역이다.

www.kci.go.kr

번역가가『한 명』을 번역하여 출판하고자 하였을 당시 출판 과정은 이들에게 녹록지 않았다. 우선, 대학 출판사 및 상업 출판사에서는 300개 이상의 미주가 달린 이 책이 역사책인지, 소설인지 애매하다는 이유로 출판을 거절하였다(김자경 2021: 63-64). 또한 정치적으로 미국에는 일본 우호적인 풍토가 깔려있고, 일본의 물질적 투자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 책의 출판을 어렵게 한 당시 출판장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가는 '위안부' 생존자들이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책을 출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32개의 출판 제안서를 써서 출판사에 보냈고, 마침내 32번째로 제안서를 받은 워싱턴 대학 출판사에서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ibid.). 이렇듯 출판장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책을 출판하고자 한 번역가의 동기 및 추구하는 가치, 즉 번역가 일루지오는 어떠한지 살펴보자.

2.3. 번역가 일루지오

일루지오는 특정 장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행위자들 간의 암묵적 동의 및 관심을 말한다(이영훈 2021: 55). 예를 들어, 문학적 일루지오는 문학작품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행위자가 문학 활동이라는 게임에 참여하게 하는 전제조건이다(Gouanvic 2005: 163).『한 명』영어 번역을 실천한 번역가의 일루지오, 즉 번역의 동기 및 번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살펴보면, 첫째, 번역가는 '위안부' 피해자가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역사소설을 타 문화권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 "When we became aware of Kim Soom's novel『한 명』and this is the first Korean 장편소설 to focus on 위안부, we realized this was an opportunity for us to recover a tragic event in modern Korean history and to resurrect it from oblivion and return it to historical memory(김숨 작가의 소설『한 명』이 한국에서 출간된 '위안부'에 대한 첫 번째 장편소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번역을 통해) 소멸해가는 한국 근대 역사의 비극에 대한 기억을 부활하고, 역사적 기억으로 남길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자경 2021: 55)[7]

7) 인터뷰 원문은 김자경(2021)에서 발췌하였고, 괄호 안 번역은 필자의 번역이다.

www.kci.go.kr

둘째, 번역가는 트라우마 역사소설인 이 작품을 번역하여 고통의 감정과 역사를 드러내고 타 문화권에 전달함으로써 제대로 아물지 못하고 봉합된 상처의 궁극적 치유와 회복을 모색하였다.

> "We think translation of trauma literature, though painful maybe to some readers, has the capacity for healing, for closure. It brings a peace of mind that accompanies the resolution(읽는 독자들은 고통스러울지라도 트라우마 문학을 번역하여 전달하는 것은 치유와 종결을 가능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등 해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기도 하지요)." (ibid.)

이렇듯『한 명』을 번역한 번역가는 소멸해가는 기억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타 문화권에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치유와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일루지오를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번역가가 이 일루지오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번역을 실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 번역사회학 관점에서『한 명』번역 분석

작가 김숨의 소설『한 명』은 허구를 기반으로 한 소설이 아니라 '위안부' 생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과거 경험과 감정을 생생하게 기록한 증언소설이고, 작품 전반에 걸쳐 316개 미주를 표시하여 진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 작품이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과 '위안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전달하고자 노력한 증언소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배지연 2020: 269). 이처럼 '위안부'의 증언 문장을 직접 사용하고 그 출처를 밝히는 방법은 '위안부'를 재현한 다른 소설들과는 구별되는 점이다(장수희 2019: 95). 게다가 작품 속 '위안부'의 감정과 당시 생활상은 번역을 거치며 더욱더 명시적이고 구체화 되어 전달된다. 이는 '위안부'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타 문화권 독자들이 '위안부' 관련 실상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한 번역가 실천의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번

www.kci.go.kr

역 작업을 진행하면서 번역가는 ‘위안부’ 생존자의 구술 증언인 300여 개의 미주를 재확인하고,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작가와 여러 관련자, 전문가에게 문의하며 작품의 역사적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김자경 2021: 57). 이러한 번역가 실천이 결과물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원작 『한 명』(김숨 2016)을 원천 텍스트(source text, ST)로, 번역본 *One Left*(Kim 2020)를 목표 텍스트(target text, TT)로 하여 살펴보겠다. 분석 초점이 되는 부분은 ‘위안부’가 거주했던 위안소, 그곳에서 ‘위안부’가 느낀 감정, 그리고 위안소에서 일어난 일들, 즉 구체적인 행동 묘사 부분이다. 이 세 요소가 분석의 초점이 된 이유와 세부 번역 방식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다.

3.1. 장소 묘사 상세화

먼저,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주했던 위안소에 대해 묘사하는 부분이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인하고 있고(김소륜 2018: 307), ‘위안부’ 생존자들은 트라우마로 인해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삭제되거나 수치심 때문에 상세히 증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Cho 2003: 25). 이러한 상황에서 타 문화권 독자들이 ‘위안부’ 및 위안소에 대해 파악하고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위안소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바탕으로 이러한 곳이 실재했음을 믿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위안부’의 생활상을 문학 및 영화로 재현하는 경우 고증을 통해 가장 세심하게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가 위안소이다.[8] 실제로 어떤 형태의 장소였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One Left*에서도 다음 사례들과 같이 위안소에 대해 원문보다 좀 더 상세한 묘사가 등장한다.

---

8) ‘위안부’ 증언영화인 <귀향>을 제작한 조정래 감독은 고증을 통해 철저하게 재현하고자 한 것이 위안소였다고 언급한다.

> “영화 속 위안소는 저희가 할머니 증언과 나눔의 집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히 고증을 해서 만들었다. 나눔의 집 밑으로 내려가면 위안소 방의 모델이 있다. 거기 안에는 실제로 위안소에서 사용했던 기물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프고 섬뜩하다. 한쪽에는 대야 같은 것에다 소독약을 풀어서 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쿠’라는 콘돔도 있다.” (김세운 2016)

www.kci.go.kr

(사례 1)[9]
ST: 끝없이 펼쳐지는 허허벌판을 화물트럭이 몇 뼘씩 튀어 오르며 한나절을 달려간 곳에는 베니어합판으로 사방을 두르고 지붕에 기와를 얹은 집이 있었다. (p. 34)
TT: The truck bounced along a road across the wilderness plain before arriving at a building **surrounded by a barbed-wire fence**; the structure had plywood walls and a tile roof. (p. 21)

(사례 1)은 강제로 끌려간 소녀들이 도착한 위안소 건물을 묘사하는 장면이다. TT에서는 ST에 없는 'surrounded by a barbed-wire fence'(철조망으로 둘러싸인)라는 묘사가 추가되었다. 이는 번역가가 임의로 덧붙인 것이 아니라 '위안부' 증언집인『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I』(김종수 2019)을 바탕으로 추가한 부분이고, 이에 대해 번역가는 ST에는 없는 미주를 붙여 증언집 내용을 추가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증언집을 살펴보면 '위안부' 생존자가 다음과 같이 증언한 내용이 나온다.

"막사 문을 몰래 열고 나와보니 말도 트럭도 차도 아무 것도 없었다. 철조망에 널려 있는 거적대기만 거센 바람에 철덕거리고 있었다." (ibid.: 103)

증언집에서 언급된 '철조망'을 근거로 번역본에서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곳'이라고 장소 묘사를 상세화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세한 장소 묘사를 통해 타 문화권 독자들에게 위안소 형태 및 환경이 어떠했는지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위안소 환경에 대한 일종의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가치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번역에서 장소에 대한 묘사를 상세화한 사례를 좀 더 살펴보자.

(사례 2)
ST: 30여 분을 걸어가자 **아무렇게나 지은 초가집**이 나왔다. 군용트럭이 울타리도 없는 초가집 앞에 서 있었다. (p. 41)
TT: From there a thirty-minute walk brought them to **a thatch-roofed structure coated with red dust**; **it lacked the usual brushwood fence**. A military truck was parked close by. (p. 26)

9) 이하 모든 사례에서 굵은 글씨체 및 밑줄을 통한 강조는 필자의 강조이다.

www.kci.go.kr

(사례 2)에서 ST에서는 '아무렇게나 지은 초가집'이라고만 묘사한 것을 TT에서는 'a thatch-roofed structure coated with red dust'(붉은 먼지로 뒤덮인 초가집)이라고 좀 더 상세히 묘사하고, 'it lacked the usual brushwood fence'(나뭇가지로 만든 담장조차도 없다)라고 설명한다. 이 또한 허구의 묘사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최초 위안부 구술기록집인『들리나요? 열두 소녀 이야기』(정혜경 외 2013)를 바탕으로 세부 묘사를 덧붙인 것이다. 이 증언집이 번역 시 참고자료였다는 것은 TT에서 미주를 통해 제시한다. 이 구술기록집 증언을 살펴보면, 위안소 형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 기록이 나온다.

> "새집도 아니고 좀 헌집이더라. 위에는 그게 슬레이트도 아니고 뭣이 막사 같은 게, 위에 돌가리[돌가루]로 했던가 뭐로 했던가 그래 했어." (ibid.: 112)

'위안부' 피해자들이 주로 강제 동원되어 갔던 지역이 중국, 만주와 같은 지역이었고, 허허벌판에 위안소를 지어놓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황사 먼지가 자욱했을 것이다. 그리고 돌가루를 뿌려놓았다는 증언 등을 바탕으로 번역가는 '붉은 먼지로 뒤덮인 초가집'이라고 세부 묘사를 덧붙인 것이다.

다음 (사례 3)도 번역에서 장소 묘사를 상세하게 덧붙인 사례에 해당한다.

> (사례 3)
> ST: 아침이 되어 그녀가 **뒷마당 세면실**로 갔을 때 소녀들이 저마다 울면서 피 빨래를 하고 있었다. (p. 43)
> TT: The next morning she went to **the canvas-covered laundry area** in the backyard to find all the girls in tears as they washed their bloody underwear. (p. 28)

(사례 3)에서도 ST에서는 '뒷마당 세면실'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TT에서는 'the canvas-covered laundry area in the backyard'(천막을 친 뒷마당 세면실)라고 좀 더 상세히 묘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번역가가 미주에서 언급한 구술증언집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www.kci.go.kr

"처음에 중국을 데꼬 들어갔는 기라. 데꼬 들어가서 저 어디 '갑빠'집이 죽 있는기라. '갑빠' 가지고 집을 맹그랐는기라." (정혜경 외 2013: 338)

여기서 '갑빠'는 천막을 일컫는다. 이 부분에서도 번역가는 증언 기록을 바탕으로 좀 더 상세하게 장소 묘사를 추가한다. 이렇듯 장소에 대한 묘사를 상세하게 덧붙이는 것은 위안소의 실재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타 문화권 독자들에게 이러한 장소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소멸해가는 기억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 타 문화권 독자에게 실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한 번역가의 일루지오가 구현된 방식이다.

3.2. 감정 묘사 상세화

원작에서는 '위안부' 피해자가 느꼈던 고통과 절망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는 한국어가 감정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고 상세히 표현하기보다는 간접적이고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고맥락 문화권 언어(마승혜, 김순영 2021a: 89)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작가의 글쓰기 스타일 때문일 수도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암시적으로 묘사된 감정이 번역에서는 좀 더 명시적으로 전달되어야 명시적 표현을 선호하는 저맥락 문화권 영어 독자가 그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10] 또한 번역에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감정을 묘사하고 전달함으로써 독자는 '위안부'가 느꼈던 감정을 추체험(追體驗)할 수 있게 된다(마승혜, 김순영 2021b: 41).『한 명』 번역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감정 묘사를 상세화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사례 4)
ST: 소녀들은 자신의 비명 소리를 따라 돌림노래처럼 이어지는 비명 소리들을 들었다. **그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돌림노래였다**. 만주 위안소의 소녀들이 칸칸마다 든 방들은 달랑 베니어합판 한 장으로 구분해놓아 서로

10) 홀(Hall 1989)은 '맥락(context)'을 중심으로 문화 집단을 '저맥락 문화'와 '고맥락 문화'로 분류한다. 영어는 저맥락 문화권 언어로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감정표현을 선호하지만, 한국어는 고맥락 문화권 언어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맥락에 의존하여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www.kci.go.kr

의 신음 소리까지 다 들렸다. (p. 44)
TT: The girls in this comfort station in Manchuria could hear one another's screams, **an endless round of pain**, through the thin plywood walls of their rooms. And they could hear one another moaning and groaning. (p. 29)

(사례 4)에서는 소녀들이 각자의 방에서 잔혹하게 학대당하던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ST에서는 각 방에서 들리는 소녀들의 비명소리를 '시작도 끝도 없는 돌림노래'라고 암시적으로 묘사한 반면, TT에서는 '돌림노래'라는 상징적 표현 속에 내포된 감정을 'an endless round of pain'(끝도 없는 고통의 돌림노래)이라고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을 볼 수 있다. 간접적 묘사를 직접적 묘사로 바꾸어 감정을 명시화 한 것이다.

다음 (사례 5)에서도 번역 결과 감정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례 5)
ST: 이제 여기서 죽는가보다 하면서도, 이런 데 있다가 집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한탄하면서도, 고향집에 돌아가면 뭐라고 말해야 하나 막막할 때가 있었다. 실공장에 있었다고 해야하나? 비단공장에 있었다고? 아니면 그냥 좋은 공장에. (p. 90)
TT: But the next moment she would wonder what use it would be to go home; considering what she'd done in the comfort station, she'd be better off dead. What would she say to her family? That she'd been working at a thread factory? A silk factory? Maybe she should just tell them she was working at a nice factory? **Such thoughts filled her with gloom**. (p. 65)

(사례 5)에서 '위안부' 소녀는 귀향하고픈 마음이 절실하지만, 고향에 돌아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을 떠올리며 괴로워한다. 이 암울한 심정을 ST에서는 인물의 사고 흐름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지만, TT에서는 'Such thoughts filled her with gloom'(이러한 생각이 들면 소녀는 침울해졌다)이라는 설명을 덧붙여 소녀의 침울한 감정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이 부분에서는 ST에 없는 설명을 TT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감정을 명시화하고 있다.

www.kci.go.kr

(사례 6)

ST: 복사뼈 바로 위에 고무줄을 두른 듯 선이 한 줄 가 있다. 칼 같은 날카로운 것에 베인 흉터다. 손으로 흉터를 더듬는 그녀의 입이 벌어지더니 사금파리 같은 **탄식을 토한다. 위안소에서 발이 잘린 소녀가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p. 119)

TT: Above the bone is a line you might think was left by an elastic band, but actually it's a scar left by something sharp, a knife perhaps. She passes her hand across the scar, then opens her mouth and **a shriek bursts out. That was me who had her ankle sliced open at the comfort station!** (p. 87)

(사례 6)의 경우, 번역에서 원문보다 강한 의미의 감정표현 단어를 사용하고, 간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전환하여 독자가 작중 인물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례 6)은 위안소에서 도망가려다 붙잡혀 온 소녀의 발목을 위안소 관리자가 칼로 베어 도망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장면인데, ST에서는 시간이 지나 그 소녀가 자신의 복사뼈 위 흉터를 보며 '탄식'을 토한다고 표현한다. '탄식'의 사전적 의미는 "한탄하여 한숨을 쉼, 또는 그 한숨"(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다. 이 부분을 TT에서는 'shriek'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shriek'의 사전적 의미는 "a short, loud, high cry, especially one produced suddenly as an expression of a powerful emotion"(짧고, 크고, 강한 외침, 특히 강력한 감정의 표현으로 갑자기 표출된 외침)(Cambridge Dictionary)이다. ST의 '탄식'보다 강한 의미의 감정표현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ST에서 '위안소에서 발이 잘린 소녀가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이라고 관찰자 시점으로 기술한 부분을 TT에서는 'That was me who had her ankle sliced open at the comfort station!'(위안소에서 발이 잘린 소녀가 나였어!)이라고 당사자 시점에서 직접화법으로 설명하고, 게다가 느낌표까지 추가하여 ST에 비해 좀 더 직접적이고 강하게 감정을 표출한다. 번역 독자가 작중 인물의 감정을 좀 더 가깝고 직접적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타 문화권 독자들로부터 공감과 연대감을 끌어내고자 한 것이다.

이렇듯 번역에서는 감정을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덧붙이는 방식을 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문학 영어 번역을 오랜 기간 수행해 온 번역가의 언

www.kci.go.kr

어 및 번역 대한 자본이 축적되어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고, 번역 시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도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전달하여 타문화권 독자의 이해를 돕고,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가치도 보존하고 한 번역가의 일루지오가 구현된 것이기도 하다.

3.3. 행동 묘사 상세화

'위안부'가 겪었던 일의 경우, 이에 대한 보도자료, 책, 드라마, 영화와 같은 콘텐츠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접한 사람들은 두루뭉술하게 묘사된 행동도 맥락과 배경지식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관련 배경지식이 없는 타 문화권 독자들은 상세히 설명해주지 않으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번역에서는 원작에 비해 행동 묘사를 좀 더 상세히 하였고, 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사례 7)
ST: 그래서 소녀들은 자기 피와 **아편을 먹고 죽었다**. 손가락을 잘라 자기 **피를 빨아 먹고** 아편을 먹으면 자면서 죽는다는 걸 어떻게 알고는. (p. 58)
TT: And so the girls would cut themselves and **bleed to death while high on opium**. Knowing that if they cut a finger and **sucked long enough to get the blood flowing**, the opium would put them to sleep and they'd never wake up. (p. 40)

(사례 7)은 위안소 생활을 견디지 못한 '위안부'가 자살을 시도한 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ST에서는 행동 묘사가 상세하지 않아 소녀가 아편을 먹고 죽는 것인지, 아편을 먹고 피를 빨아 먹어 죽는 것인지 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ST에서 '아편을 먹고 죽었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TT에서는 'bleed to death while high on opium'(아편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이라고 상세화하였고, '자기 피를 빨아 먹고 아편을 먹으면 자면서 죽는다'는 ST 내용은 'sucked long enough to get the blood flowing, the opium would put them to sleep'(자기 피를 충분히 오랫동안 빨아서 계속 흐르

www.kci.go.kr

게 하고, 아편을 먹으면 정신을 잃고 자게 된다)이라고 TT에서 상세화하였다. 결국 아편을 먹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가 계속 흐르게 두면 과다출혈로 죽게 된다는 인과관계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이렇듯 TT의 상세한 행동 묘사를 통해 타 문화권 독자들은 '위안부'의 고통과 고난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다음 사례도 ST보다 좀 더 상세하게 행동을 묘사하는 TT 사례이다.

(사례 8)
ST: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외까풀이던 애순은 **물에 타 쓰라고 준 과망간산칼리**를 삼켰다. 다행히 금복 언니가 토하게 해 죽지 않고 살았지만 목구멍이 쪼그라들었다. (p. 71)
TT: Aesun with her swarthy face and thin eyelids drank **the potassium permanganate solution she was supposed to dilute with water to clean her privates**. Fortunately Kumbok onni found her and made her throw up. But the solution left her throat raw. (p. 51)

'위안부' 소녀들은 성병에 시달렸기 때문에 독한 과망간산칼리를 받아서 물에 희석하여 씻고 소독하였다. ST에서는 '물에 타 쓰라고 준 과망간산칼리'라고만 표현하여 물에 타서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데, TT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to clean her privates'(은밀한 부위를 닦으라고)라고 설명을 덧붙여서 독한 과망간산칼리의 용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행동 묘사가 좀 더 구체화 된 번역 사례가 다수 등장하는데,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9)
ST: 순덕도 아편에 중독되어 얼굴이 까맣게 타들어갔다. 오토상은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순덕에게 **살려주겠다고 하면서 아편 주사를 놓았다**. (p. 126)
TT: Sundŏk was addicted as well and her face was a bilious dark color. She would cling to otosan begging him to save her. **"Sure, I can save you," he would coo before injecting her**. (p. 92)

www.kci.go.kr

‘위안부’ 소녀들은 아편을 맞으면 아무리 피가 나도, 군인이 몇 명이 다녀가도 아픔을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 그곳을 운영한 ‘오토상’은 소녀들에게 아편을 놔주고 더 많은 군인을 받게 한다. 아편 비용은 소녀들에게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오고 계속 더 많은 군인을 받아서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사례 9)는 ST에서 ‘오토상’이 아편 주사를 놓아주면서 하는 행동을 TT에서 직접화법으로 전환하여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어쩔 수 없이 아편에 의존하게 된 소녀들이 더 아편에 빠져들게끔 하는 장면인데, ‘오토상’의 행동을 ‘coo before injecting her’(달래가며 아편 주사를 놓았다)라고 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직접화법을 통한 상황 전달, 구체적인 행동 설명은 타문화권 독자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추체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명시적인 것을 선호하는 저맥락 문화권 언어인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 이러한 명시화·상세화가 번역 시 당연한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One Left*에서는 ‘위안부’가 겪은 일을 역사적 기록으로도 남기고, 타 문화권에 알리고자 한다는 일루지오를 번역가가 분명히 밝혔고, 별도의 관련 기록을 찾아보고 원문에 없는 정보를 추가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이는 단지 원문의 간접적·암시적인 표현이 번역에서 명시화된 것이라고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원문보다 구체적인 위안소 묘사, 등장인물의 감정 및 행동에 대한 상세 설명을 통해 타 문화권 독자들이 ‘위안부’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감과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 번역가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번역가의 실천 결과 타 문화권 독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One Left*를 읽은 독자 반응을 분석하여 살펴보겠다.

4. *One Left* 출판 후 독자 반응 분석

기존의 전통적 사회학에서는 “번역 생산에 참여한 사람(agents active in translation)”과 “번역 과정(translation process)”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번역을 “사회학적 눈(sociological eye)”으로 살펴보는 연구로 확대되면서 “문화적 결과물의 사회학(sociology of the cultural product)”에 대한 연구도 발전하고, 번역 결과 형성되는 사회적 정체성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Wolf 2007: 13). 그리고

www.kci.go.kr

번역 결과물의 역동성은 번역 수용 공간(the space of reception)에 따라 달라진다(Heilbron and Sapiro 2007: 93). 그러므로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번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번역 관계자와 번역 텍스트뿐만 아니라, 번역이 유통되는 세계장(international field)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ibid.: 104).

*One Left*의 경우, 번역 출판 전 번역가의 일루지오는 '위안부' 생존자가 모두 돌아가시기 전, 이 작품을 세계에 알리고, 고통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고 타 문화권에 전달하여 궁극적으로 상처 치유, 회복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감정, 행동, 장소가 더욱 상세해진 번역이 생산되었다. 그렇다면 번역 결과물을 접한 번역 독자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번역가의 의도가 번역 독자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영미권 최대 서평 사이트인 '굿리즈'(Goodreads)와 '아마존'(Amazon)에 게시된 번역 독자 서평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굿리즈'에는 *One Left*에 대해 총 155명이 별점 평가를 남겼고, 그중 31명이 서평을 작성하였다. '아마존'에는 총 26명이 별점 평가를, 그중 5명이 서평을 작성하였다. '굿리즈'의 31개 서평 중 2개는 동일인이 작성한 중복된 서평이고, '아마존'의 5개 서평 중 1개는 한국인이 작성한 서평이므로 이 둘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굿리즈' 독자 서평 30개, '아마존' 독자 서평 4개, 총 34개의 서평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One Left*를 읽은 독자 반응 및 변화는 크게 5개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11]

〈표 1〉 *One Left* 독자 반응 분류

독자 반응 분류	서평 수
1. 감정 이입 및 공감	13
2. 역사적 사실 및 중요성 자각	12
3. 타인에게 추천	5
4. 행동 촉구	2
5. 기타	2
합계	34

11) 모든 서평이 이 범주로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둘 이상의 범주에 속하는 서평도 있다. 예를 들어, 공감과 자각을 동시에 드러내는 서평이 있다. 본고에서는 어떠한 범주에 속하는 서평이 많은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어떤 양상으로 독자가 변화하는지를 정성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중첩되는 서평의 경우 필자의 판단하에 독자가 좀 더 강조점을 두는 범주로 분류하였다.

www.kci.go.kr

먼저, 감정 이입 및 공감을 표현한 독자 반응 사례를 살펴보자.[12)]

(독자 반응 1)-감정 이입 및 공감
So heartbreaking to read this, both as a human being and (especially) as a woman. **My head and my heart hurt** from thinking of the constant abuse these girls went through(이 책을 읽으니 인간으로서, (특히) 여성으로서 **너무나 가슴 아프다**. 이 소녀들이 겪었던 끝없는 학대를 생각하면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다**).

(독자 반응 2)-감정 이입 및 공감
As a reader, I search novels for comparisons to my own life. In this case, **my privileged circumstances bear no resemblance to the horrors exposed in the book**. So, instead, **I read to learn and empathize**. There was much here to absorb about misogyny, cruelty, and hegemony(독자로서 나는 내 삶과 비교하기 위해 소설을 읽는다. 이 책을 읽어보니 **특권처럼 느껴지는 나의 상황은 책에서 보여주는 끔찍한 상황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파악하고 공감하기 위해 이 책을 읽었다**. 이 책에는 여성혐오, 잔인함, 헤게모니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많다).

(독자 반응 1)과 (독자 반응 2)에서는 *One Left*를 읽고 독자가 느끼는 슬픔, 그리고 같은 여성으로서 감정을 이입하여 작중 인물의 고통에 공감하게 되는 감정적 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공감은 '위안부'에 대한 초국적 연대를 형성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총 34개의 서평 중 13개는 주로 이 책을 읽고 난 후 겪은 감정적 변화에 대해 언급한다.

두 번째로 독자가 이 책을 읽고 '위안부' 관련 역사적 사실과 그 중요성에 대해 자각하게 된 경우이다.

(독자 반응 3)-역사적 사실 및 중요성 자각
"It's such a heartbreaking look into the lives of the young girls that were forced into arguably some of the worst conditions imaginable. **It definitely**

12)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독자 반응 사례는 모두 Goodreads 서평 사이트에서 추출한 것이고, 괄호 안 번역은 필자의 번역이다.

www.kci.go.kr

helped me understand exactly why there continues to be bitterness, frustration, and anger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peoples(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어린 소녀들의 삶에 대한 비통한 이야기이다. **왜 한국과 일본 국민 간에 쓰라림, 좌절, 분노가 지속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독자 반응 3)의 경우,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위안부'가 겪은 처참한 경험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 간 갈등이 왜 쉽게 해소되지 못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독자 반응 4)-역사적 사실 및 중요성 자각
"There were times this felt more like an academic text rather than a novel: at best it read like a mash-up of the two. (…) From a distance it is all too easy to consign awareness of historical outrages to a dim corner of our consciousness. Not until we are confronted with direct evidence of a disaster... are we **forced to acknowledge the magnitude of the trauma and the urgency of the need for healing**(이 글은 소설이라기보다 학문적 텍스트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적어도 이 둘을 섞어놓은 것처럼 느껴졌다. (… 중략 …) 가까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어서 역사적 분노에 대한 인식을 어렴풋하게 의식의 한구석으로 밀쳐놓기 쉽다. 비극적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직면하면 그때 **트라우마의 심각성과 치유의 시급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독자 반응 4)에서도 독자는 '위안부' 생존자가 겪은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지 깨닫게 되었음을 언급한다.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무역분쟁,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등을 놓고 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타 문화권에서 역사적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총 34개의 서평 중 12개는 이 책을 읽고 이해하게 된 것, 깨닫게 된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한다.

(독자 반응 5)-타인에게 추천
"*One Left* is Kim Soom's first work translated into English. The book's

www.kci.go.kr

translators, Bruce and Ju-Chan Fulton, have masterfully brought it to life for English readers. No words are minced or euphemisms used in describing what the girls experienced. **I commend this book to anyone who desires to look into this horrid chapter in Korean history**(*One Left*는 김숨 작품 중 영어로 번역된 첫 번째 책이다. 이 책의 번역가인 브루스 풀턴과 주찬 풀턴은 훌륭하게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영어권 독자들에게 전달했다. 소녀들의 경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말하거나 완곡어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한국 역사의 끔찍했던 시기를 들여다보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독자 반응 5)에서 독자는 *One Left*를 읽고 이 책에서 묘사하는 경험과 감정이 사실적이고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하며, 당시 끔찍했던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독자 반응 6)-타인에게 추천
"This is a wonderfully written novel that depicts the reality many Korean comfort women faced. Through the use of well-timed flashbacks, readers are shown the horrible living conditions and scenes of mistreatment in stark detail. Many specific details are directly from real testimonies of victims, which in my opinion makes this novel even more significant. **I would highly recommend this to anyone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Korean history as well as anyone interesting in sexual violence during war**(많은 한국인 위안부들이 겪었던 현실을 잘 그린 소설이다. 시기적절한 플래시백을 통해 독자들은 끔찍한 생활 환경과 학대의 장면을 극도로 자세하게 보게 된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피해자의 실제 증언을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이 소설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은 사람과 전쟁 중 성폭력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독자 반응 6)의 독자 또한 이 책이 허구 소설이 아니라 피해자 실제 증언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기에 더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쟁 중 성폭력에 관해 알고 싶어 하는 모든 이에게 이 책을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총 34개의 서평 중 5개의 서평에서는 이 책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내용을

www.kci.go.kr

담고 있다.

(독자 반응 7)-행동 촉구
"**It high time we accept and rewrite history with the actual truth** instead of the fake glorification of uniformed men and their medal-flaunting leaders(군인들과 메달을 과시하는 지도층을 미화하는 것 대신 **실제 진실을 바탕으로 역사를 다시 쓰고 수용해야 할 때이다**)."

(독자 반응 8)-행동 촉구
"These young Korean women were so dehumanized, abused, and forcibly forgotten by Japan in recent history; it's absolutely unforgivable and I'll never regard Japan with the same whimsical fascination and awe. Which is probably the most hypocritical and pithy thing I could say as an American, whose country was founded on equally atrocious actions. Regardless, **these women deserve to be known and acknowledged, and ultimately respected and taken care of**(근대 역사에서 이 어린 한국 여성들은 일본에 의해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학대당하고 강제로 잊혔다. 이는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 없으며 나는 결코 일본을 예전처럼 기발한 매력이 있는 곳으로 경외심을 갖고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잔인한 행동을 바탕으로 설립된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위선적이고, 쉬운 말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여성들은 알려지고 인정받을 자격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존중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독자 반응 7)과 (독자 반응 8)처럼 역사를 바로잡고, '위안부' 여성을 존중·보상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평도 볼 수 있다. 총 34개 서평 중 2개의 서평에서는 이처럼 명시적으로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머지 기타 범주로 분류된 2개의 서평은 책 제목 번역에 대한 언급, 간략하게 책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13]

13) 34명 독자의 인식 변화가 '위안부' 문제를 초국적 논의로 이어가는 기반이 되기에는 미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문화를 통해 행동주의를 실천하는 행동가들은 이러한 작은 문화적 인식 변화와 행동을 "아주 작은 힘으로 거대한 바위를 움직이는 지렛대(a lever that moves a huge boulder with very little force)"(Verson 2007: 177)라고 한다.

www.kci.go.kr

2022년 ‘위안부’ 생존자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기억 또한 소멸하여 가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간 화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초국적 연대와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위안부’ 역사를 보편적 인권 문제로 접근하여 초국적 역사 쓰기를 모색해보자는 제안(박정애 2022)도 있고, 이제 ‘위안부’ 실증보다는 초국적 방법의 기념을 고민하자는 의견(이헌미 2020)도 있다. 초국적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역사문학을 통한 감정과 상황의 전달이다.[14] 그러므로 역사문학 번역 실천을 통해 ‘위안부’ 역사 및 한일 갈등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타 문화권 독자가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고 공감을 통한 감정적 연대를 형성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및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위안부’ 증언소설『한 명』과 영어번역 *One Left*의 ‘번역가-번역결과물-독자반응’을 살펴보고 번역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작품 번역을 가능케 한 번역가의 아비투스와 자본을 살펴보고, 작품 출판 당시 출판장의 상황과 이 번역을 실천한 번역가의 동기, 즉 일루지오 또한 분석하였다. 아비투스, 자본 그리고 장의 요소들이 어우러져 구체적인 실천이 일어나므로 번역이라는 실천이 일어나게 된 구체적인 요소들을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한 명』과 *One Left* 비교·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 양상을 살펴보았다. 작가뿐만 아니라 번역가 또한 다양한 ‘위안부’ 증언자료를 살펴보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번역을 실천한 것을 볼 수 있다. 장소 묘사를 좀 더 구체화하여 ‘위안부’ 관련 역사적 지식이 많지 않은 타 문화권 독자들이 위안소의 실재를 믿을 수 있도록 설득력을 강화하였고, ‘위안부’의 감정과 당시 그곳에서의 생활상, 행동 묘사를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타 문화권 독자가 그 고통과 경험을 구체적으

14) 역사문학 *Pachinko*의 작가 이민진은 사실과 사건만 전달하는 역사는 흥미롭지 않아서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결국, 흥미롭지 않은 역사를 흥미롭게 전달하고 여러 사람에게 확산할 방법은 흥미로운 스토리를 활용한 문학이라고 언급한다(마승혜, 김순영 2022: 148).

www.kci.go.kr

로 추체험할 수 있게 돕는다. 번역 실천 이후 작품을 출판한 영미권 출판장을 살펴보니 이 번역서 출판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있었다. 번역가는 여러 출판사에 출판 제안서를 보냈지만, 출판사에서는 300개 이상의 미주가 달린 이 책을 소설로 출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명하며 출판을 거절했다. 제안서를 받은 출판사 중 32번째 출판사에서 제안을 수락하여 힘겹게 출판할 수 있었다. 이렇듯 번역가의 번역 실천과 노력 덕분에 영미권 독자들이 이 책을 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이 독자들은 '위안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을 독자 반응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 책을 읽은 영미권 독자들은 '위안부'의 참상을 알게 되고, 공감하며, 한일 양국 갈등이 지속되는 원인, '위안부' 관련하여 치유 및 회복의 시급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번역은 단지 언어 간 전환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번역은 의도와 목적을 갖고 행하는 사회적 실천이고,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 인식 형성 및 변화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번역의 사회적 기능을 본 연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번역사회학을 기반으로 '번역가-번역결과물-독자반응'을 분석하고, 번역 전과 후를 아우르는 전체 과정을 살펴보다 보니 연구 범주가 다소 방대해진 허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번역 실천을 수행하게 된 맥락-과정-결과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좀 더 세부 논의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미영 (2009)「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역사기록과 문학적 재현의 서술방식 비교 고찰」,『우리말글』45: 217-245.

김소륜 (2018)「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국제어문』77: 303-326.

김자경 (2021)「한국문학 번역에서 문학 번역가의 역할: 브루스 풀턴, 주찬 풀턴의『한 명』번역 결정부터 *One Left* 출판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번역학연구』22(2): 47-77.

www.kci.go.kr

김종수 (2019)『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I』, 서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마승혜, 김순영 (2021a)「이(異)문화 문학작품 번역 시 명시화 요소 및 전략 연구: 북한소설『벗』영역본 감정표현을 중심으로」,『동서비교문학』55: 87-107.

마승혜, 김순영 (2021b)「역사문학 번역 충실성에 대한 일고찰—'위안부' 소설 *White Chrysanthemum*을 중심으로」,『통역과 번역』23(2): 29-54.

마승혜, 김순영 (2022)「부르디외(Bourdieu)의 사회학 관점에서 살펴본 이산문학 혼종성: 이민진(Min Jin Lee)의 *Pachinko*를 중심으로」,『동서비교문학』62: 141-167.

배지연 (2020)「기억의 서술과 문학적 재현 김숨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설들을 중심으로」,『우리말글』86: 245-276.

이성희 (2013)「부르디외의 '아비투스'·장·자본의 상호형성 메커니즘—이론적 고찰과 경험적 연구의 활성화 방안」,『교육사회학연구』23(2): 151-171.

이영훈 (2021)「번역사회학 개관: 피에르 부르디외의 사회학 이론을 기반으로」,『번역·언어·기술』2: 45-69.

임진 (2021)「나는 왜 번역하는가?—한 중국어 출판번역가의 아비투스를 중심으로」,『문화와 융합』43(6): 659-679.

정찬영 (1999)「증언소설의 개념과 특성」,『현대문학이론연구』11: 343-374.

정혜경 외 (2013)『들리나요? 열두 소녀의 이야기』, 서울: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Bourdieu, Pierre (1984) *Distinction*,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Cho, Sungran (2003) 'The Power of Language: Trauma, Silences, and the Performative Speech Act—Reading Nora Okja Keller's Comfort Woman (2), Speaking Subjectivity of the Mother', *Journal of American Studies* 35(3): 21-42.

Gouanvic, Jean-Marc (2005) 'A Bourdieusian Theory of Translation, or the Coincidence of Practical Instances: Field, "Habitus", Capital and "Illusio"', *The Translator* 11(2): 147-166.

Hall, Edward (1989) *Beyond Culture*, New York: Anchor Books.

www.kci.go.kr

Heilbron, Johan and Gisèle Sapiro (2007) 'Outline for a Sociology of Translation: Current Issues and Future Prospects', in Michaela Wolf and Alexandra Fukari (eds) *Constructing a Sociology of Transl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93-107.

Tyulenev, Sergey (2014) *Translation and Society: An Introduction*, Oxon: Routledge.

Verson, Jennifer (2007) 'Why We Need Cultural Activism', in Trapese Collective (ed.) *Do It Yourself: A Handbook for Changing the World*, London: Pluto Press, 171-186.

Wolf, Michaela (2007) 'Introduction: The Emergence of a Sociology of Translation', in Michaela Wolf and Alexandra Fukari (eds) *Constructing a Sociology of Transl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1-36.

<분석 텍스트>

김숨 (2016)『한 명』, 서울: 현대문학.

Kim Soom (2020) *One Left* (Trans. Bruce and Ju-Chan Fulton),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인터넷 자료>

고병찬 (2022)「'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향년 94」,『한겨레』, 2022년 12월 31일 검색. Available at https://www.hani.co.kr/arti/society/obituary/1073329.html

김세운 (2016)「영화 '귀향' 조정래 감독 "'위안부' 피해 할머니 아직 전쟁 속에서 살고 있다"」,『민중의 소리』, 2023년 1월 5일 검색. Available at https://vop.co.kr/A00000995455.html

박정애 (2022)「보편적 인권 문제로소의 '위안부; 역사, 초국적 역사 쓰기는 가능할까」, 『동북아포커스』, 2023년 1월 5일 검색. Available at https://blog.naver.com/correctasia/222619498061

신재연 (2013)「토론토 알파 청년들, UN 행사서 발표」,『재외동포신문』, 2023년 1월 5일 검색. Available at http://www.dongponews.net/news/

www.kci.go.kr

articleView.html?idxno=24596
이헌미 (2020) 「'위안부'의 실증은 끝났다, 이젠 '초국적 방법의 기념'을 고민해야 한다」, 『경향신문』, 2023년 1월 5일 검색. Available at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02050600025#c2b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16) 'Asian Studies Faculty Spotlight Interview: Bruce Fulton'. Available at https://asia.ubc.ca/news/asian-studies-faculty-spotlight-interview-bruce-fulton/

<기타 온라인 사이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Cambridge Dictionary: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shriek
Goodreads: https://www.goodreads.com/en/book/show/53154232-one-left

www.kci.go.kr

[Abstract]

Promoting Transnational Understanding of "Comfort Women": A Bourdieusian Analysis of the English Translation of Kim Soom's "Han my ng" (*One Left*)

Seung-Hye Mah
(Dongguk University, Seoul)

This study explores the social implications of transla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a testimonial novel *One Left* and its English translation. According to the sociology of translation, the translator-translation outcome-reader response are closely correlated; therefore, they need to be investigated holistically. In this study, the translators' *habitus* and capital that made the translation possible are examined, including the publishing field at the time when *One Left* was published in the Anglo-American society. In addition, the translators' illusio, i.e., the motivation behind carrying out the translation, is investigated. It turns out that the descriptions of places in the translation are more detailed and specific than those in the original, which strengthens the validity of the existence of comfort stations for foreign readers. Furthermore, how the comfort women had felt and what they had experienced in the comfort stations are more concretely conveyed in translation, which helps readers from other cultures to imagine the victims' excruciating pain. Thanks to the translators' practice and effort, readers in the Anglo-American society were able to learn about the painful history of the comfort women and their awareness of the issue has been raised. Such accurate and better understandings of the comfort women issue can lay the foundation for transnational discussions and even resolution of the issue.

www.kci.go.kr

Keywords: sociology of translation, habitus, illusio, field, capital, comfort women testimonial novel
주제어: 번역사회학, 아비투스, 일루지오, 장, 자본, '위안부' 증언소설

마승혜(https://orcid.org/0000-0003-2098-1777)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영어통번역학전공 조교수
shm213@gmail.com
관심 분야: 문학번역, 번역사회학, 번역교육

논문 투고: 2023년 2월 20일
1차 심사 완료: 2023년 3월 8일
2차 심사 완료: 2023년 3월 15일
게재 확정: 2023년 3월 24일

www.kci.go.kr